

이슈 리포트

16

2003년 10월 다섯째주(10/27 ~ 11/1)

◎ 주요내용

- 세상돋보기:	한국이 봉이냐!
- 노동자 세상:	35세, 임금노동자퇴직
- 통신정책:	IT전공자, 취업실패
- 정자동 6층에서:	통신산별의 필요성
- 만화방	시사 만화



KT노동조합 정책기획실



!

- 한국의 '이라크 실제 분담금' 美-英 이어 세계 3위 -

UN 안보이사회에서 이라크파병이 결의되었다고 하나 전쟁 초기에도 그랬듯이 지금도 미국의 이라크 전쟁은 국제적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의 동맹관계, 그리고 경제적 이익을 이유로 파병을 해야한다고 하지만, 도리어 미국의 봉취급을 당하며 국제적 냉대를 자초하는 것이 아닐까?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호응하지 않으며, 그나마 파병을 결정했던 터키마저 파병철회를 검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치권만 파병을 계속 주장하고 있으니 개탄스러운 일이다. 최근 정부의 파병철회를 위한 국민행동에서 민족의 자주성과 평화를 위해 전국민적 캠페인과 지침을 마련하였다. 깨어있는 국민으로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기울이자. 아래 글은 이라크 전쟁에 대한 전세계의 반응과 한국의 파병이 얼마나 그릇된 일인가를 적나라하게 알려주는 글이다. 인터넷신문 '프레시안'에 실린 글을 인용하였음.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렸던 이라크지원국회의가 24일(현지시간) 폐막된 가운데 모금액이 당초 목표치인 5백60억달러에 크게 못미치는 3백30억달러에 불과했다. 또 이 정도 모금액의 가운데 상당액은 무상지원이 아닌 차관형태여서 미국을 당혹케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개별국가로는 불과 10여개국만이 지원의사를 밝힌 가운데, 한국은 2억6천만달러 전액을 무상으로 지원키로 약속해 국가별 지원규모면에서 일곱번째로 많은 '지원국 G7'이 됐다. 여기에 파병시 비용을 자비로 전액 부담하기로 한 데 따른 천문학적 규모의 전비비용을 합치면 실제 부담규모는 세계 3위로 추정되고 있다.

"역시 한국은 봉"이라는 사실이 또한차례 적나라하게 입증된 셈이다.

AP, AFP 통신 등 외신들은 24일 로드리고 라토 스페인 재무장관 말을 인용해 "미국이 지원하기로 약속한 2백억달러를 포함해 이번 이라크 지원국 회의에서 국제사회가 3백3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로부터는 고작 1백30억달러를 모으는 데 그친 셈이다.

당초 세계은행은 이라크 재건을 위해 필요한 금액을 5백60억달러로 추정했던만큼 이번 회의에서 모인 돈은 이에 크게 못미친 액수여서 앞으로 미국은 추가 모금압력을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61개 국가와 19개 국제기구가 참석한 이번 스페인 마드리드 이라크 지원국 회의에서 미국외에 걸린 1백30억달러 가운데 절반 가량을 미국 통제하의 국제경제기구가 지원키로 한 것이어서, 이를 제외하면 개별국가들로부터 걸린 돈은 극히 미미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이 각각 40억달러와 30억~50억달러를 각각 약속했으나, 이들 기구는 미국의 직접통제아래 있는 기구이며 이들 기구의 분담금은 결국 이들 기구에 가입한 세계각국에게 분담되는 '간접세'의 성격이 짙다.

엄격하게 말하면, 이들 기구에 가입한 우리나라 입장으로서는 이라크 파병 준비와 별도의 재건분담금외에 IMF와 WB를 통해 '제3의 추가분담'까지 떠맡게 된 셈이다.

이외에 개별국가들로 걸린 돈은 애당초 분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던 유럽이 아닌, 아시아-중동의 친미국가들 몫으로 돌아왔다.

당초 이라크전에 반대했고, 이라크 유엔결의안이 통과될 때도 이라크에 대한 파병 및 추가지원 거부를 전제조건으로 찬성표를 던졌던 유럽은 유럽연합(EU) 명의로 8억1천2백만달러를 제공하는 데 그치기로 했다.

단지 유럽 가운데 이라크전에 찬성했던 영국은 8억4천만달러, 이탈리아는 2억3천2백만달러, 스페인은 3억달러, 벨기에는 5백90만달러, 덴마크는 5천만달러, 슬로바키아는 29만달러를 제공키로 했다. 하지만 프랑스-독일-러시아 등 대다수 주요국가들은 한 푼도 내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반면에 일본과 한국,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등 아시아 및 중동국가들에게 모든 짐이 돌아왔다. 일본은 2004년 15억달러 무상지원과 함께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5억달러를 차관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일본은 7억달러 가량이 더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우리나라는 2억6천만달러의 무상원조를 약속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보다 국내총생산(GNP) 규모가 큰 중국은 우리나라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2천4백만20만달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으며, 필리핀도 1백만달러를 내기로 했다.

아랍국가 가운데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10억달러 지원을 약속했으며 그 가운데 절반인 5억달러는 2007년까지 차관형태로 제공하기로 했으며, 이라크가 사우디에 지고있는 2백40억달러의 대외채무 가운데 일정부분을 변제하겠다고 사우디 알-파이살 사우디 외무장관이 밝혔다.

쿠웨이트는 이미 지원된 10억 달러를 포함해 15억달러 제공의사를 밝혔고, 아랍에미리

트연합은 2억1천5백만달러를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종합해 보면 2억6천만달러 전액을 무상원조키로 한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스페인에 이어 일곱번째 지원국이 됐다. '이라크 지원 G7'이 된 셈이다.

하지만 무상원조 규모에서는 2억1천만달러만 무상원조키로 한 스페인을 제치고 6위가 되며, 여기에 파병시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용(1만명 파견시 연간 8천억원, 3년 파병시 2조 4천억원)까지 합하면 실제로 우리나라가 부담하게 될 비용은 이라크전 주도국인 미국, 영국에 이어 세계3위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일본은 50억달러 지원금 가운데 15억달러(우리돈 1조7천여억원)만 무상지원키로 했기 때문이다.

대규모 병력 파병을 하라는 압박을 받는 동시에, 파병시 실질 부담금 규모에서도 세계 3위의 짐을 떠안게 된 한국. 이것이 한국이 국제사회에 보여준 '적나라한 현주소'이다.

	<	7	>
1.		10 1	.
2.	10 25 (3 ,)		2
	, 11 15 ()		'
3.			'
	.		
4.	/ /		.
	(11 1 , 11 9 , 11 19 , 12)
5.	7		,
	.		
6.	가		.
	(273 ')		'
	' ')		
7.	10 ' , ,		'
	.		

“ 35 , ? ”

☞ KT도 그러했지만 최근 각 기업들은 침체된 경기 속에서 살아 남기 위해 인력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한국 남성은 35세 전후에 임금 근로자에서 퇴출이 본격화 된다고 한다.

임금근로자에서 퇴출된 한국 남성들은 실업자가 되거나 고용주, 자영업자 등 비(非) 임금근로자로 바뀐다는데, 이는 OECD국가들의 평균 연령보다 10년이나 빠른 것이라고 한다.

35세를 훌쩍 넘긴 나는 아무 준비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찌 해야 하나? 걱정이 이만 저만 아닐 수 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하다. 노동조합을 통해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 받는 것이 어떤 준비보다 가장 확실한 방안은 아닐까?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강해야 함은 물론이다.

다음은 10월 24일 한국노동연구원이 주최한 ‘고령화시대 노동시장정책에 관한 국제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 일부를 발췌하였다. 고용안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인사. 보상 관리에서 연령(나이)의 중요성:

⇒ 기업체의 인사관리에서 연령은 매우 중요한 변수이며, 인사관리에서 고령자를 배제하는 방식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 명예퇴직자를 선정하는과정에서 연령을 고려한 사업체는 55.5%, 근속년수를 고려한 사업체는 64.8%

▷ 신규채용 시 연령을 제한한다는 사업체는 전체의 50%, 인력을 선발할 때 고령자를 기피한다고 응답한 사업체는 58.6%

□ 고용자 고용현황

⇒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체의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률은 평균 3.7%에 불과하다.

⇒ 특히 통신업의 고령자 고용률이 특히 낮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고령자(55세) 고용률: 산업별

(단위: %)

평균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 수도업	도소매	운수업	금 용 보 험	통신업	부동산 임대업	기 타 서비스
3.70	1.58	5.36	2.76	0.94	8.01	1.08	0.83	8.39	8.19

⇒ 고령자 고용률은 경제위기 직후 감소하였다가 최근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며,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고령 근로자 고용비율이 높음.

고령자 고용율 변화추이

(단위: %)

구분	93년	94년	95년	96년	97년	98년	2000	2001	2002
5인이상	4.82	5.19	5.72	6.42	6.65	6.88	6.65	6.57	-
300인 이상	2.58	2.85	3.03	3.21	3.46	3.51	3.44	3.03	3.70

□ 연령 계층별 임금 근로자 잔존율

⇒ 연령별로 임금근로자로 남아 있는 경우가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감소함

▷ 10~29인의 소규모 사업체: 50대 초반 근로자가 50대 후반에도 남아 있는 경우 88.8%.

▷ 500인 이상 대기업: 50대 초반 근로자가 50대 후반에도 남아 있는 경우 29.5%

□ 고연령 취업자 중 임금 근로자 비율

⇒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으나 이들을 위한 일자리는 매우 적은 상태임. 특히 국민연금 등 노후 보장이 제대로 갖추지 못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 전체 남성근로자 중에서 55세 이상 근로자는 7.2%

▷ 55~64세 고연령 남성취업자 임금 근로자는 45%, 여성은 40%

▷ 이중 상용근로자는 남성 21.6%, 여성 3.9% ♪



IT , ,

최근 청년실업과 대졸자의 구직난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가운데 IT인력의 취업률과 전공 종사율 및 임금수준을 실증적으로 분석해 향후 IT인력정책 수립의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보고서가 발표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이주헌) 정보산업연구실 고상원 박사팀은 향후 IT인력 정책이 배출인력의 질적수준 제고와 더불어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하는 정규교육기관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맞춰져야 한다고 IT전공자 취업률, 종사률, 임금분석을 통해 주장했다.

보고서의 조사대상은 2001년 2월 졸업자를 모집단으로 설정, 지난 2년여간의 노동시장 진입 행태 및 진입후 변화과정을 살펴봤다.

▲IT인력 취업률 = IT관련학과 졸업자의 시점별 취업률에 있어 전문대 및 4년제 대학의 IT 전공 졸업자 3천명에 대한 조사결과 전체 졸업자의 32%만이 졸업 직후 취업이 가능했으며, 졸업후 4개월이 지난 시점인 6월에는 약 55.4%만이 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졸업후 2년 4개월이 지난 2003년 6월 시점에서의 취업현황을 보면 전문대 졸업자의 경우 취업자가 전체 졸업자의 79.1%, 대학교 졸업자의 경우 취업자가 전체 졸업자의 78.4%로 나타났다. 한편 전공별 취업률에서는 처음 1년까지는 전산컴퓨터(72.2%), 디자인(71.4%), 경영정보(68.4%), 전기전자통신전과(65.9%)의 순으로 높았고, 협소한 차이지만 전산컴퓨터와 디자인학과가 처음에 상대적으로 빠른 취업률을 보인 반면, 2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전기전자통신전과 학과의 취업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IT인력 취업률 조사에 있어 주목할 점은 IT분야의 경우 전문대학 졸업자에 대한 수요가 높아 대졸자보다 취업률이 높다는 지금까지의 통설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 전문대학의 경우 졸업 직후 취업률이 35.6%로 4년제 대학의 28.7%에 비해 높았으나 2년이 지난 시점에서 각각 76.4%, 77.6%로 역전되는 현상을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IT인력의 전공종사율 = IT전공 졸업자가 실제로 어떠한 직업을 선택하고 어떠한 산업에

중사하는지는 IT인력의 공급구조를 분석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산업분류 및 직업분류의 상이한 기준에 따라, 산업분류에 따르면 IT관련학과 졸업자의 31~37%가 IT산업에 종사하고 직업분류 기준하면 34~42%가 IT직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전공종사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남성이 여성에 비해 전공에 종사할 확률이 2.6배 정도 높고, 전문대학 졸업자보다 대학교 졸업자가 2.2배 정도 높으며, 지역별로는 서울과 수도권출신 졸업자들이 지방대에 비해 1.6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2001년 2월 졸업생 실태조사에서 도출된 취업률과 전공종사율을 통해 IT학과 졸업생중 IT직업에 취업된 인력비율을 보면 2003년 6월을 기준으로 전문대 졸업자의 22.5%, 대학교 졸업생의 경우 40.7%만이 IT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IT인력의 임금수준 = 2001년을 기준으로 IT산업의 월평균임금을 보면 183만원 수준으로 전체 산업평균인 166만원보다 10%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IT제조업의 경우 146.1만원 수준으로 전체 제조업 평균인 146.4만원보다도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노동자의 비중이 높은 것이 주요한 원인중 하나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IT 서비스업의 임금수준은 전체 평균보다 50%이상 높은 257만원 수준으로 대기업이 집중돼 있는 전기통신업의 경우 전체평균보다 77%나 높은 296만원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소프트웨어 자문이나 개발 및 공급업의 프리미엄도 44%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자료처리업, 기타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관리업의 프리미엄은 각각 21%, 4%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여타변수를 통제하고 IT산업 혹은 직업이 가지는 순수한 임금효과를 분석한 결과 동일한 능력과 자격, 경험 등을 가진 자가 IT산업에 근무할 경우 가지는 임금 프리미엄은 8.4%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를 작성한 KISDI의 고상원 박사(정보산업연구실 연구위원)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향후 IT인력 정책의 방향을 크게 인력양성의 질적 수준 제고, 전문대학의 위상 재점검, 관련 통계 확충의 필요성 등 세가지로 제시했다. ♪



6층에서

()

지난 10월 23일 정보통신부와 이종걸 국회의원이 외국인 지분제한 제도 개선과 공익성 심사 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 과학기술정보위원회에 상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개정 내용에 대해 정통부와 이종걸의원은 글로벌 경영과 외국인 투자 촉진이 원활해 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내용 하나 하나를 살펴보면 한국의 통신시장 현실과 한국정부의 해외자본에 대한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의 통신산업이 외국자본에 종속되고, 우량 통신기업 경영이 외국자본에 장악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이런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작 KT노동조합에서 우려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할 수 있을 뿐이다.

이는 단위노동조합에서 단독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통신산별(연맹) 단위에서 전체 통신노동자가 함께 대응했어야 할 사항이었다.

최근 하나로 통신의 경우 주총에서 LG그룹에 맞써 외자 유치안을 성공시킨 것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외국자본이 기간통신사업을 장악한 시작을 알리는 것이며, 향후 이들은 만만한 한국정부 정통부를 대상으로 각종 정책에서 유리한 상황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전체 통신노동자의 대응은 더욱 절실해 진다.

제대로 된 통신산별(연맹)이 있을 경우 국회에서 진행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시 잘못된 부분에 대해 공동대응을 할 뿐만 아니라, 대정부 교섭과 투쟁을 통해 잘못된 변경을 강제해 낼 수 있었을 것이다.

한 방안으로 노사정위원회 내에 통신부문 위원회를 구성하여 정통부를 대상으로 법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정을 직접 요구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물론 정부가 노동조합을 탄압하면서 노사정위원회를 허울좋은 대화틀로만 활용한다면 가입

조차 하면 안되지만, 과거의 그런 요소가 바뀌고 노사정간의 진지한 대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면 통신정책과 현실문제를 풀어가는데 유리한 교섭틀임은 분명하다.

노사정내 통신위원회 등이 통신관련노동조합의 강력한 힘을 토대로 구성되어진다면, 이 논의 구조에서는 단위사업장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조정문제, 비정규직 문제, 노동시간 단축 문제들도 상당부분 진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공공연맹은 원칙론에 입각하여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하고 있을뿐 아니라 통신업종 이외에 다양한 업종이 포함되어 있기에 이런 사안에 집중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그리고 한국노총내의 정보통신연맹도 규모나 의지, 그리고 실력 등을 감안할 때 통신업종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아쉬움이 많은 전개통신사업법 개정 과정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언제나 제대로 된 통신(산별)업종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손꼽아 기대해 본다.♪

화

방

